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23.(수) 15:00 < 8.24.(목) 조간 > 배포 2023. 8. 23.(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폴란드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장관 면담
- 교역·투자, 유럽연합(EU) 경제입법 등 협력 확대 논의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방한 중인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과 8. 23.(수) 서울에서 면담하고 △교역·투자, △유럽연합(EU) 경제입법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하였다.

양국 장관은 지난 7월 우리 정상 순방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투자 협력기반이 강화되고 원전·방산·기반시설 분야 협력이 공고화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도 양국 간 교역이 지속 증가('18년 50.1억 달러 → '22년 89.5억 달러)하여 지난해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성장 잠재력과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등을 고려 시 양국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폴란드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 배터리 법안 등 유럽연합(EU)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고, 산업부가 박람회(엑스포) 주무 부처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 활동을 총력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진석 (044-203-56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